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매사추세츠 주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지난해 대폭 줄어 팬데믹이었던 2020년 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전체 한국 학생들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특히 매사추세츠의 경우 감소세가 컸다. 사진은 하버드 대학교

## 보스톤 한인 유학생 대폭 감소... '오기 힘든 곳 되나'

IEE <오픈도어스> 2025년 보고서, 팬데믹 때보다 줄어 충격  
팬데믹 이후 상승세 꺾여, 지난해에 비해 10퍼센트 감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주내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 몇년간의 증가세를 접고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무려 10퍼센트가 하락해, 내년 발표 추이가 주목된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교육연구소(IEE)가 11월 17일 발표한 2025년 <오픈도어스> 연례보고

<전체 기사 읽기>  
서에 따르면, 2024/2025년 미국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보스톤 및 매사추세츠주 한인 유학생수는 4년 연속 증가했던 추세를 접고 2523명으로 감소했다. 2023/2024년도의 2798명에 비해 무려 275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이번 유학생 수는 팬데믹 당시이던 지난 2020/2021년도의 2585명보 >>5면으로 계속

## 한국 혁신 기업들, 보스톤서 미국 진출 가능성 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주최 보스톤프론티어스 2025, 20개 업체 참여  
보스톤의 VC, 전문가들과 1:1 미팅, 미국 진출 교두보 확보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에서 혁신 및 성장성을 입증해 해외진출을 노리는 스케일업·포스트 팀즈 기업들이 11월 18일 바이오 및 로보틱스의 메카인 보스톤서 벤처캐피탈, 산업 전문가들과 1:1 매칭 미팅을 진행하며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보스톤 모건루이스&보키어스(Morgan Lewis & Bockius)로폼에서 열린 '보스톤 프론티어스2025' 행사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TIPA)과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스톤에서 개최된 것은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KVAC 스케일업팀스 본부 유지은 과장은 "보스톤은 한국 스케 >>6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틱스 제공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저아 하블린터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지금 이 채용자 기회!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책임집니다!  
저금리 융자 · 채용자 전문, 맞춤형 금융 솔루션으로  
최적의 결과를 드립니다.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Disclosure: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is an Equal Housing Lender. We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familial status. Licensed Mortgage Banker-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Terms and conditions apply. All loans subject to underwriting approval.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대사관,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여전히 기승

## 보스톤총영사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긴급 공지 뛰어 경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 대사관 등 공관, 검찰청 및 금감원 등의 발신번호로 전화번호를 조작, 해당 기관 관계자라며 한인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보스톤에서 급증하고 있다.

보스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들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미국 공관, 검찰 또는 금감원 등으로 전화번호를 조작해 “특정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민원실에서 찾아갈 긴급 서류가 있다”, “사건 처리를 위해 특정 APP를 설치하여 통화해야 한다”,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등의 말로 접근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다.

보스톤 총영사관 지은석 동포담당 영사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인들이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직접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속아넘어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면서 한인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사는 “한국 정부기관은 △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이나 금전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 재외공관 역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금전 송금 또는 계좌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며 “당황하지 마시고,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 고 강조했다.

### 〈전체 기사 읽기〉

한국 정부관련 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와 금전관련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특히 범죄, 수사, 계좌, 송금, 현금, 서류 전달 등 금전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면 바로 사기라는 점을 깨닫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이 같은 정부기관 사칭 전화 사기 범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전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번갈아가며 공략하고 있다.

다시말해, 무방비 상태의 한인들이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혹 이런 전화를 받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주보스톤 총영사관 (617-641-2830, kcg-boston@mofa.go.kr)로 문의할 수 있다.

지영사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분들께서는 주변 지인들과 사례를 적극 공유해주시기 바란다. 사례 공유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며, 지역 동포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보스톤코리아도 사례를 공유하는 경우 적극 보도할 방침이다.



로드아일랜드 한국전 참전용사들, 오른쪽 두번째가 고 전좌근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이다

## 전좌근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별세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전좌근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회장이 11월 16일 일요일 별세했다.

고 전좌근 회장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뿐만 아니라 이북5도민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미국 참전용사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다.

고 전회장의 웨이크는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마스윌터퀸퍼너럴에서

### 〈전체 기사 읽기〉

진행된다.

전좌근 회장의 부고에 앞서 11월 11일 백옥전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도 별세했다. 고 백옥전 회장은 2013년에서 2014년에 한인 회장을 역임했다.

고 전좌근 회장 웨이크 2025년 11월 21일 금 11AM - 1PM Thomas and Walter Quinn Funeral Chapel 2435 Warwick Ave Warwick, RI 02889

현직 외교관이 알려주는 해외 소식

**미국 내 한국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주의**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                                  |          |
|----------------------------------|----------|
| Korean Red Ginseng Powder        | 1,360 mg |
| Korean Red Ginseng Extract       | 80 mg    |
|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 120 mg   |
| Deer Antler Extract Powder       | 120 mg   |
| Korean Angelica Extract          | 120 mg   |
| Cornus Officinalis Powder        | 120 mg   |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함유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칠당귀, 산수유, 상향너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부드러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별첨 단권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 사우스엔드 스시 전문점 <311 오마카세> 보스턴 첫 미쉐린 스타 획득

한식당은 소맥이 유일하게 추천 레스토랑에 올라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올해 처음 보스턴 지역이 포함된 미쉐린 가이드 북동부판(Northeast Cities Edition) 발표 행사에서 사우스엔드의 스시 전문점 311 오마카세(311 Omakase)가 보스턴 최초의 미쉐린 원스타를 획득했다. 한국 레스토랑으로는 유일하게 소맥(Somaek)이 추천 레스토랑에 오르는 것에 그쳤다.

311 오마카세는 지하 아파트를 개조한 작은 공간에서 완성도 높은 오마카세 코스를 선보이며 최근 급증한 보스턴 스시 업계의 대표주자로 꼽혀 왔다. 셰프 웨이파 첸(Weifa Chen)은 뉴욕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마사(Masa)' 출신으로 경험을 인정받았다.

필라델피아 키멜센터(Kimmel Center)에

### <전체 기사 읽기>

서 이번 발표에서 보스턴은, 빙 구르망(Bib Gourmand)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바 볼페(Bar Volpe), 폭스 앤 더 나이프(Fox & the Knife), 자흥거(Jahunger), 마하니옴(Mahaniyom), 파구(Pagu), 수마오 후난 키친(Sumiao Hunan Kitchen) 등 6곳이 선정됐다.

또한 추천 레스토랑(Recommended)으로 아스타(Asta), 줄리아(Giulia), 넵툰 오이스터, 와신(Wa Shin), 우즈힐 피어4, 소맥(Somaek)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쉐린 가이드 국제 디렉터 그웬달 플렌넬은 "보스턴은 뛰어난 식재료와 음식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이번 선정이 지역 셰프들이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매사추세츠 전역 렌트컨트롤 내년 주민투표 직행할 듯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전역에 렌트컨트롤을 도입하는 주민투표 안이 내년 11월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주민투표안을 추진하는 연대 조직 '킵 매사추세츠 홈(Keep Massachusetts Home)' 측은 지난 몇 달 동안 12만4천 개가 넘는 서명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3월까지 주 선거국에 제출해야 하는 최소 유효 서명수 7만4천574개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 안건은 주내 모든 시와 타운에 공통 적용되는 렌트컨트롤을 도입해 대부분의 아파트에 대해 연간 렌트비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4가구 이하 소형 건물과 준공 10년 미만 새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소규모 집주인과 신규 주택 공급을 고려했다. 인상 상한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되,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렌트컨트롤은 세입자 단체와 노동조합 중심이 돼 지지하고 있다. 세입자 연대조직 '홈스 포 올 매사추세츠(Homes For All Massachusetts)'가 안건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노조(SEIU) 매사추세츠 협의회, 매사추세츠교원연합(MTA) 등 유력 노동단체들도 공개 지지를 밝혔다. 이들은 "임대료 폭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세입자가 너무 많다"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누

### <전체 기사 읽기>

구나 감당 가능한 주거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렌트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NAIOP 매사추세츠, 그레이터보스턴 부동산위원회, 매사추세츠 공인중개사협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각 시·타운의 선택권 없이 전역에 강제 적용되는 이 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주거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규 개발 축소, 건물 유지·보수 저하, 임대주택 품질 하락도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제기했다.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린다. 렌트컨트롤 확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보스턴의 미셸 우시장은 본인이 제안했던 '물가연동형·로컬옵션' 방식보다 이번 안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주 전역 일괄 적용이 아니라 각 지자체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에서는 1994년 주민투표로 렌트컨트롤이 금지된 이후, 보스턴·브루클라인·케임브리지 외에는 사실상 정책 논의가 중단돼 왔다. 그러나 최근 주거비 급등으로 세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세입자 단체들이 직접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며 이 문제가 다시 뜨겁게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매사추세츠 난방 가스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

##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공공유틸리티국(DPU)의 전 국장이 매사추세츠 가스요금이 점점 비싸지는 구조를 설명하고 전기화로의 전환 등 난방의 다양화를 통한 장기적 비용 절감 전략을 제시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DPU를 이끌었던 제이미 노스트랜드 매사추세츠 DPU 전 국장은 최근 기고한 칼럼을 통해 “가스 사용량이 줄고 있음에도 요금이 오르는 현상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고객이 부담하는 연료비보다 가스배관 교체·유지 등 인프라 비용 비중은 크게 늘어 연료비보다 더 많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매사추세츠 가스 유틸리티 기업들이 노후 배관 교체에 투입한 비용은 50억 달러를 상회하며, 이는 매달 고지되는 ‘전달비(delivery charge)’ 항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요금의 대부분이 연료비였지만 지금은 70% 가까이 인프라, 세금, 이윤으로 구성돼 있다”며 고객이 연료가 아니라 ‘낡은 시스템 유지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배관을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자본투자를 진행할 경우 50여년에 걸쳐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이익이 많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틸리티사들은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노스트랜드 전 국장은 재임 당시 유틸리티의 과도한 자본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했다. 배관 전면 교체 대신 표적 수리나 대체 기술 검토를 의무화하고, 신규 가스 연결을 기존 고객이 보조하는 ‘라인 연장 보조(line-extension allowance)’ 폐지를 추진해 매년 1억 6천만 달러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유틸리티가 고객 요금에 더하는 모든 1달러는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스트랜드 전 국장은 “가스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확장은 결국 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후 변화 대응을 떠나 에너지 비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전기화·난방 방식의 다양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스망이 시대 변화에 맞춰 축소하고 전기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일”이



라고 진단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이미 2020년 이후 9만대 이상의 전기 히트펌프가 설치됐고, 효율 향상과 계절별 히트펌프 요금제 도입 등으로 전기 난방이 점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매사추세츠는

선택을 해야 한다. 소비자 수요가 변하는 만큼 시스템 투자를 재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환 흐름을 무시해 가계와 기업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가”라며 정책 결정자의 지속적 개입과 감시를 촉구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김유림 Yulim Kim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특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매사추세츠 주정부, 대학 학위는 확실한 경제적 보증수표

힐리 주지사, 등록금 지원 확대 효과 분석한 첫 보고서 공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공개한 주내 29개 공립대학생들의 졸업 후 소득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5년 후 대졸자의 경우 고졸자에 비해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 이상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공립대학을 졸업한 매사추세츠 주민의 5년 후 중위소득이 전문대의 경우 6만1천 달러 이상, 4년제 학사의 경우 7만2천 달러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고졸자의 중위소득은 약 4만2천 달러에 그쳤다.

특히 보건, STEM, 기술, 무역 분야 전공자의 소득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자영업자나 군 복무자 등 일부 직군은 이번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 교육부는 졸업생 소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표를 구축해 향후 매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보고서와 관련한 데이터는 DHE(주 고등교육청)의 퍼포먼스 측정 시스템(PMRS) 대시보드를 통해 대학별로 공개된다.

주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가 그동안 추진해온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힐리 주지사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말한다. 매사추세츠의 학위는 확실히 ‘가치를 제공한다.’” 며 “공립대학 졸업생들은 더 높은 임

### 〈전체 기사 읽기〉

금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지역 경제에 필요한 숙련 인력으로 자리 잡는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펠그랜트 대상 학생에게는 모든 공·사립 대학의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칼리지 전액 무료화, 그리고 각종 주정부 장학금 확대로 2023~2024학년도에만 총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킴 드리스콜 부지사는 “공립대학은 평생 커리어 성장의 핵심 토대”라며 “이러한 투자가 학생 개인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튜트와일러 교육장관은 “고등교육은 경제적 이동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사다리”라며 “모든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데 주정부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최근 ‘Go Higher’ 캠페인을 론칭해 고등교육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MEFA Pathway와 MyCAP 등 진로·학업 설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전국적 FAFSA 지연 사태로 인한 재정 지원 혼란을 줄이기 위한 ‘Financial Aid Road Show’도 운영하고 있다.

## 보스톤 한인 유학생 대폭 감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되나'

▶▶1면에 이어서

다더 적은 수치란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내 전체 한국 유학생 수도 4만2천 293명으로 2024년 집계된 43,149명에 비해 전체 2퍼센트 감소했으나 보스톤 지역의 감소세는 두드러졌다.

이 같은 보스톤 지역 유학생의 감소에는 보스톤 지역의 높은 생활비와 대학의 학비, 그리고 미국 내 취업의 어려움 상승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유학생 변화를 살펴보면, 로드 아일랜드에 한인 유학생은 2023/24년 360명에서 2024/25년 353명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뉴햄프셔메인 버몬트 한인 유학생은 타국가 출신 학생 수가 늘어 집계에 포함되지 못했다. 뉴잉글랜드 지역 전역에 재학중인 한인 유학생은 2900여명으로 추정되며 매사추세츠의 감소치가 그대로 전체 수치에 반영됐다.

그동안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한인 유학생은 인도,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으나 올해의 감소로 인해 캐나다에 3위를 내줬다.

보스톤 및 매사추세츠주 총 외국인 유학생 수는 2퍼센트 상승한 84,079명으로 미국 전체적인 증가 추세와 궤를 같이 했다. 전체적으로 미국내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에 이어 4번째로 유학생이 많은 주였다.

매사추세츠내에서 외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노스이스턴 대학이 22,465명, 보스톤대학(BU)은 12,845명, 하버드 8,110명, MIT 5,456명, 유메스 앰허스트 5,158등의 순으로 대부분 상승했다.

### 보스톤의 비싼 생활비와 투자 대비 효과 감소

한인 유학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스톤 지역의 높은 생활비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주 보스톤 인디케이터스의 발표에 따르면 보스톤의 렌트비는

### 보스톤 유학생 변화 추이

| Year    | Number |
|---------|--------|
| 2024/25 | 2523   |
| 2023/24 | 2798   |
| 2022/23 | 2711   |
| 2021/22 | 2639   |
| 2020/21 | 2585   |
| 2019/20 | 2986   |
| 2018/19 | 3069   |
| 2017/18 | 2957   |
| 2016/17 | 2972   |

미국내 샌디에이고, 산호세, 뉴욕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편이며 미국내에서 가장 공실율이 낮다.

이와 더불어 교통, 생활비, 보험료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학생들은 사립대 비중이 높아 높은 등록금에 비용부담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보스톤은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란 인식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취업 가능성을 유학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대비 취업 비자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H-1B 취업비자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미국을 주요 선택지에서 배제시킬 여지가 많았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 이후 H-1B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고 강력한 외국 유학생 제한 조치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617.742.7707**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한국 혁신 기업들, 보스톤서 미국 진출 가능성 확인

▶▶1면에 이어서

일업 기업의 포트폴리오 중 특히 비중이 높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최적지"라며 "바이오 연구·병원 생태계가 집중된 보스톤의 특성을 감안해 장소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20개 한국 혁신 스타트업이 참여해 현지 VC 및 의료·산업 전문가들과 1:1 심층 미팅을 진행했다.

## 보스톤 벤처캐피탈, 기술력에 호평, 미국 파트너 확보 필요

보스톤의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기술력과 잠재력에 대체로 호평을 보냈다. 퍼싱벤처스 파트너 토드 다보크씨는 "오늘 만난 기업들은 기술 수준이 매우 인상적이며, 동급 최고(first-to-class)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내에서의 미 있는 투자를 유치한 회사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한국일보 초창기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다는 다보크씨는 VC가 투자를 고려하는 주된 요인으로 "미국에서 확실한 수익 흐름이 중요하다. 미국내 제품 생산을 위한 계약을 맺거나 제조 하청기업, 서브컨트랙터 등과 관계를 확보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 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로 "명확한 고객이나 협력사 확보 없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고객 없이 미국에 와서 법인을 세우고 영업 인력을 뽑는 방식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먼저 미국 고객사·제조파트너·서브컨트랙터와 관계를 확보한 뒤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보스톤 스타트업 생

## 태계에 대한 첫인상

이번에 참석한 19개 기업 중 12개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였다. 한 스타트업 대표의 지역별 생태계 차이에 대한 현장 관찰이 돋보였다. 혁신 스타트업 버즈앤비 심충보 대표는 보스톤과 서부 실리콘밸리의 분위기 차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보스톤은 연구자 중심 도시로 매우 진지한 분위기이다. 캘리포니아는 오픈 소시아이티에 가깝고 자유로운 기운이 강하다면, 보스톤은 훨씬 보수적이고 연구 중심적"이라고 표현한 심대표는 보스톤 바이오 생태계의 강점을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바이오 도시'라고만 알았는데, 와서 보니 연구·계약·대학·임상기관이 매우 밀도있게 연결돼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보스톤에 대해 밝혔다.

심충보 대표는 미국 진출에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고투마켓(Go-to-Market)"이라면서 "미국 고객을 어떻게 만나고 PoC(개념 검증)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가장 어렵다. 전문가 인터뷰로 시장을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고객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버즈앤비는 4억 건 이상의 유튜브 콘텐츠 분석 데이터로 성장한 AI 회사로, "한국에서 이미 매년 2배 성장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도 기회가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날 미팅을 통해 "후속 미팅(follow-up)이 1~2건 정도는 성사될 것 같다"고 전했다.

## 한국 스케일업 기업들의 '보스톤 진출 가능성' 확인한 자리

'보스톤프론티어스 2025'는 KVCA가 면밀하게 선정해 지원한 기술과 혁신이 확보된 한국 기업들이 보스톤에서 글로벌 생태계와 첫 접점을 형성하는 자리였다.

KVCA측은 이번 행사에 앞서 사전 IR(Investor Relation) 자료를 공유해 관심 투자자 지정했으며 사전 화상 미팅을 거친 후 17일 당일에는 심층 미팅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준비됐다고 밝혔다.

한국 혁신 스타트업 간의 연결은 이제 시작이나 이미 여러 미팅이 후속 논의로 이어지고 있어 내년 이후 더 본격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벤처파트너 토드 다보크씨는 "인터뷰한 기업 중 한 로봇기업은 이미 미국기업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고 소 미국기업과 함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논의 중이었다"며 "이것이 투자할 수 있는 주요 이정표"라고 말했다.

KVCA의 이현재 대리는 "기업들이 후속 미팅을 잡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투자 유치가 가장 좋은 성과지만, 그 외에도 미국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와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미국 특허 변호사 "기술은 뛰어나지만...특허 준비는 매우 부족"

이번 행사 장소인 모건루이스앤보키어스 소속 이혜승 미국 특허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는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미국 특허 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식 출원 방



맨위: 한국 혁신 기업들과 1대 1 미팅을 가진 토드 다보크 퍼싱벤처스 벤처파트너, 한국 혁신 기업들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 보스톤프론티어스2025 행사장, 모건루이스앤보키어스 로펌(두번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들(맨 아래)

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호사는 "한국법 기준으로 작성된 특허는 미국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프다"며 한국 기업들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미국 특허법 구조에 대한 학습과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미국 특허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만들

어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케일업팁스(Scale Up and TIPS): 한국의 스케일업팁스 프로그램은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민간 주도로 발굴하여 유니콘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벤처투자, R&D 등 스케일업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https://www.scaleuptips.or.kr) editor@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 SPEND LESS

How much less you would spend each year

|                |         |
|----------------|---------|
| ALDI           | \$4,368 |
| Price Rite     | \$2,652 |
| Market Basket  | \$2,340 |
| Walmart        | \$1,560 |
| Hannaford      | \$1,248 |
| Target         | \$1,248 |
| Dollar General | \$624   |
| Trader Joe's   | \$156   |
| Wegmans        | \$0     |



### SPEND MORE

How much more you would spend each year

|         |                        |
|---------|------------------------|
| \$156   | Big Y                  |
| \$156   | Shaw's                 |
| \$546   | Stop & Shop            |
| \$780   | Star Market            |
| \$2,652 | Whole Foods            |
| \$2,808 | Donelan's Supermarkets |
| \$2,808 | Roche Bros             |

## 마켓 바스켓과 웨그먼스 슈퍼마켓 중 최고로 평가

컨슈머스 체크북, 바켓바스켓은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웨그먼스는 월등한 품질에 비교적 높지 않은 가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잉글랜드 주민들에게 친숙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과 웨그먼스(Wegmans)가 가격과 품질 면에서 두각을 보였다. 소비자 단체의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소비자단체 컨슈머스 체크북(Consumers' Checkbook)은 보스톤 지역 내 12곳 이상의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150개 품목 가격 비교와 고객 설문 실시한 결과, 마켓 바스켓과 웨그먼스가 가장 돋보이는 체인으로 나타났다.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마켓 바스켓은 '달러보다 더 많은 가치(More for your dollar)' 라는 모토에 걸맞게 지역 내 가장 저렴한 슈퍼마켓 중 하나로 평가됐다. 평균 대비 약 15퍼센트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품질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신선식품과 육류 품질은 평균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웨그먼스는 품질 부문에서

압도적이었다. 보스톤 지역에 5개 매장을 운영 중인 이 체인은 응답자의 81퍼센트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답할 정도로 고객 만족도가 높았다. 가격은 쇼우스(SHAW'S)와 비슷하거나 스탑앤샵(Stop & Shop) 및 홀푸드(Whole Foods)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마켓 바스켓, 월마트, 프라이스 라이트보다는 다소 높았다.

물가 상승과 관세 여파로 토마토부터 육류까지 식재료 전반이 비싸진 가운데,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체크북 보고서는 "주당 300달러를 장보는 가정이라면 가격 차 17퍼센트는 연간 약 2,652달러 절약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켓 바스켓보다 더 저렴한 체인도 있었다. 독일계 할인매장 알디(Aldi)는 평균 대비 28퍼센트 낮은 가격을 보였지만, 매장 구성은 한정적이고 브랜드 품목도 제한적이다. 프라이스 라이트(Price Rite) 역

**(전체 기사 읽기)**  
시 평균 대비 17퍼센트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마트는 약 10퍼센트 낮았다.

트레이더 조스(Trader Joe's)는 여전히 충성도가 높은 체인으로, 응답자의 79퍼센트가 '품질 우수'를 선택했다. 가격은 웨그먼스, 쇼우스와 비슷했으며 스탑앤샵보다 약 4퍼센트 낮았다.

한편 스탑앤샵은 매장 간 가격 편차가 뚜렷했고, 쇼우스, 스탑앤샵, 스타마켓(Star Market), 타겟(Target), 월마트 등 대형 체인들은 전반적 품질 만족도에서 '형편없다(abysmal)'는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홀푸드와 로슈 브라더스(Roche Bros.)는 신선식품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가격은 평균 대비 각각 17퍼센트, 18퍼센트 더 비쌌다.

이번 조사는 치솟는 식료품비 속에서 어떤 체인이 가격과 품질의 균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보스톤 지역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올스턴 세차장 업주 보스톤 대학생의 ICE 신고 "무책임"

올스턴 세차장 직원 9명 중 3명 석방 신고했다 주장한 BU 공화당 회장 잭 시걸 "신변 위협 받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스턴(Allston)의 한 세차장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 사건과 관련해 세차장 업주는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반복 신고한 BU 학생의 행동이 무책임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ICE는 지난 11월 4일 올스턴 카워시(Allston Car Wash)를 급습해 직원 9명을 체포했다. 이 중 다수는 미국 내 합법적 노동 허가를 갖고 있었다고 직원 측 변호인 토드 포멀로(Todd Pomerleau)가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 후 보스톤대학교(BU) 공화당 학생회 회장 잭 시걸이 소셜미디어 X에서 "본인이 ICE에 신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시걸은 포스트에서 직원들을 "범죄자"라 지칭하며 이들이 우리의 일 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세차장 측은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직원들을 근거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업주 측은 시걸이 세차장에 사전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체포된 직원들은 오래 일해온 팀의 일원이며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며 가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포멀로는 "같은 정부

**(전체 기사 읽기)**  
가 노동허가를 발급해 놓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내 뱅에 태워 텍사스나 버몬트로 보내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민 절차가 '민사 시스템'이라면서 실제로는 누구보다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체포된 직원 9명 중 일부는 여전히 뉴잉글랜드 지역과 텍사스 구금시설에 남아 있으며, 3명은 이번엔 보석으로 풀려났다.

시걸은 ICE 신고 사실을 공개한 X 포스트에는 수많은 비난 댓글이 아졌다. 한 게시글은 "가족을 갈라놓은 신고 행위는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DHS 공식 계정을 비롯한 소수 네티즌은 "애국자"라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걸은 이후 신변 위협을 받았으며 소셜미디어(X)에 글을 올렸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보스톤 언론에 "이번 단속은 법 집행 정보에 따른 것이며 시걸의 신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포멀로 변호인은 "직원들과 가족들은 시걸에게 보복하거나 그의 권리를 침해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근거 없는 범죄자 낙인으로 가족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대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턴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사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5 보스턴의 트리 라이팅 시즌이 돌아왔다

(보스턴=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턴의 겨울은 단순히 춥기만 한 계절이 아니다.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조명 축제가 추운 겨울밤을 따뜻한 추억의 공간으로 바꿔 놓는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보스턴의 트리 라이팅 시즌은 단순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넘어서는 대규모 지역 축제 자리잡았다. 올해로 84회를 맞이하는 보스턴 커먼의 공식 트리 라이팅부터 각 동네별로 펼쳐지는 특색 있는 조명 행사까지, 보스턴은 말 그대로 빛으로 물든다.

특히 2025년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노바스코사에서 기증받은 크리스마스 트리다. 이 나무는 107년 동안 이어진 노바스코사와 보스턴 시민들 간의 우정을 상징한다. 1917년 헬리팩스 폭발 사고 당시 보스턴이 보낸 구호 활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시작된 이 전통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12월 4일 저녁 6시, 보스턴 커먼에서 펼쳐질 공식 점등식은 오후 7시 55분경 메인 트리에 불이 켜지는 순간을 시작으로, 보스턴 커먼과 퍼블릭 가든 전역에 있는 약 80그루의 나무들이 차례로 빛을 밝힌다.

하지만 보스턴의 트리 라이팅 축제는 단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 각 동네마다 고유한 특색을 살린 조명 행사를 개최한다. 페뉴얼 홀 마켓플레이스의 50피트 높이 노르웨이 가문비나무부터 시포트의 대규모 조명 축제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겨울 윈터랜드로 변모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산타 클로스 만남의 시간, 핫초코 서비스, 캐롤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올해는 보스턴의 마스코트인 베티 더 예티(Betty The Yeti)도 여러 행사장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페뉴얼 홀 마켓플레이스: 시즌의 화려한 시작  
11월 22일 토요일, 페뉴얼 홀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스턴의 홀리데이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이

## 〈전체 기사 읽기〉

축제는 오후 6시 정각 50피트 높이의 홀리데이 트리에 불이 켜지는 순간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 행사의 특별한 점은 산타 클로스가 참석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산타에게 직접 크리스마스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역사적인 건축물을 배경으로 한 트리 라이팅은 보스턴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다.

장소: Faneuil Hall Marketplace  
날짜: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시간: 오후 6시  
웹사이트: <https://faneuilhallmarketplace.com/do/2025-tree-lighting-at-quincy-market>

##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워터프런트 파크: 로맨틱한 블루 라이트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5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워터프런트 파크의 트렐리스에 불이 켜지며 2025년 보스턴 라이팅 시즌의 포문을 연다. 이 장소는 "보스턴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 중 하나로 선정된 곳으로, 겨울철 푸른색 조명으로 장식되는 통로가 특히 유명하다. 이 빛나는 통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겨울의 마법을 느낄 수 있다. 워터프런트의 아름다운 전망과 함께 즐기는 이 조명은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 특히 인기가 높다.

장소: Christopher Columbus Waterfront Park  
날짜: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시간: 오후 5시~6시  
웹사이트: <https://www.thebostoncalendar.com/events/2022-annual-trellis-lighting-at-christopher-columbus-park>

## 마틴스 파크 플레이십 라이팅: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밤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마틴스 파크에서 보스턴의 새로운 홀리데이 전통이 이어진다.

이 행사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된 특별한 축제다. 공원의 나무로 만들어진 놀이 배(play ship)가 파란색과 하얀색 조명으로 장식되며, 아이들을 위한 핫초코, 캐롤 공연, 다양한 홀리데이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다. 산타 클로스는 물론 보스턴의 사랑받는 캐릭터 베티 더 예티도 등장해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완벽한 행사다.

장소: Martin's Park, 64 Sleeper Street  
날짜: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시간: 오후 4시  
코플리 스퀘어 트리 라이팅: 새단장한 광장의 재개장 축하

12월 1일 월요일, 코플리 스퀘어에서 특별한 트리 라이팅 행사가 열린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돌아온 것으로, 새롭게 리노베이션된 백베이 광장의 재개장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새롭게 리노베이션된 광장의 가이드 투어, 산타 클로스와 루돌프의 특별 출연, 보컬리스트 조엘 제임스, 보스턴 칠드런스 코러스, 보스턴 팝스 에스플레네이드 브라스 앙상블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가 끝난 후 오후 6시부터는 페어몬트 코플리 플라자에서 쿠키를 즐기며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장소: Copley Square  
날짜: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시간: 오후 4시  
웹사이트: <https://www.boston.gov/calendar/2025-copley-square-tree-lighting>

## 보스턴 커먼 공식 트리 라이팅: 108년 우정의 상징

12월 4일, 보스턴의 겨울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보스턴 커먼에서 열리는 84번째 공식 트리 라이팅 행사는 단순한 점등식을 넘어 보스턴과 노바스코사의 오랜 우정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다. 저녁 6시에 시작되는 행

사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진행되며, 오후 7시 55분경 메인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진다. 이어서 보스턴 커먼과 인근 퍼블릭 가든에 있는 약 80그루의 나무들이 일제히 빛을 밝히며 도시 전체를 환상적인 겨울 풍경으로 탈바꿈시킨다. 이 장관을 목격하기 위해 매년 수천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보스턴 커먼으로 모인다.

장소: Boston Common, 139 Tremont Street, Boston, MA 02116  
날짜: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시간: 오후 6시 (트리 점등은 오후 7시 55분경)

TV 중계: WCVB Channel 5의 Holiday Lights 특별 프로그램에서 오후 7시부터 생중계

웹사이트: <https://www.boston.gov/calendar/boston-common-tree-lighting>

## 커먼웰스 애비뉴 몰 라이팅: 빛의 산책로

보스턴 커먼의 공식 트리 라이팅이 끝나면 곧바로 커먼웰스 애비뉴에서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진다. 오후 8시, 커먼웰스 애비뉴 몰을 따라 늘어선 수많은 나무들이 일제히 빛을 밝힌다. 이 조명은 찰스게이트 파크와 켄모어 스퀘어까지 이어져 보스턴에서 가장 로맨틱한 겨울 산책로를 만들어낸다. 역사적인 건축물들과 우아한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 거리는 사진 촬영 명소로도 유명하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거닌다.

장소: Commonwealth Avenue Mall (Arlington Street to Charlesgate Park)  
날짜: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시간: 오후 8시 (보스턴 커먼 점등식 직후)  
웹사이트: <https://www.boston.gov/calendar/2025-lighting-commonwealth-avenue-mall>  
bostonkorean@hotmail.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mailto: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http://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mailto: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mailto:choisigns@yahoo.com)



JUNG KWAN JANG

12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기회

#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건강을

11월 07일 ~ 11월 30일 (24일 간)

## 행사 1

### 홍삼정 / 에브리타임

- 홍삼정 240g (1개 이상) 구매 시, 천녹정 30g 증정
  - 홍삼정 120g (2개 이상), 홍삼정 리미티드 (2개 이상) 구매 시, 천녹정 30g 증정
  - 에브리타임 30포 구매 시, 10포 무료 증정(멤버스 고객 ONLY)
- \* 정240g, 정 리미티드(3개입) 구매 시, 보자기 포장 증정



\$44 상당

## 행사 2

### 뿌리삼 / 달임액/ 천녹류 (Mix & Match 가능)

- 1개 구매시 10%, 2개 구매시 15% 할인
- \* 보자기 포장 + 감사카드 증정 | \* 천삼달임액 할인 제외



## 행사 3

### 톤류 및 기호류 (Mix & Match 가능)

- 1개 구매시 20%, 2개 구매시 30% 할인
- \* 대상 제품 (총8종): 홍삼톤 골드, 홍삼톤 청, 석류홍삼, 봉밀절편, 활기력, 콜라겐 샷, 글로우 부스터 (2종)



보스턴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929.600.4880

# 공화당의 ACA대체 자체 건강보험안... 어떤 게 있나?

## 오바마케어 연장안 누를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집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이 12월 중순 표결 시한을 앞두고 미국 건강보험 마련에 한창이다. 여러 차례 민주당의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보조금 연장안을 누를 수 있는 법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폐지 시도에 이어 또 다시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저렴함” 대안을 약속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역사상 가장 긴 43일간의 정부 셧다운을 끝내며 공화당 상원은 12월 중순 오바마케어 연장을 표결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의 원들은 스스로 설정한 12월 중순이라는 마감 시한을 두고 서로 다른 의료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대중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분석가들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중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주에 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체 여론조사 담당자조차 보조금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 대신, ACA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수십억 달러를 건강보험사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고 하며, 비과세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s)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보건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계획을 비판하며, 이는 ACA 시장에서 “데스스파이럴(death spiral)”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현금 의료비 지출에 사용하게 되며, 결국 아픈 사람들만 남아 보험료는 폭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 확대 ACA보조금 연장

팬데믹 시기에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던, 확대ACA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미국인은 2천만 명이 넘으며, 올해말로 종료되면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큰 폭의 보험료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

여론은 보조금 연장을 지지하고 있다. 초당파적 의료 여론조사 기관 카이저재단(KFF)가 이번 달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확대된 세금크레딧(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연장을 지지했다. 다만 이 수치는 9월의 59%에서 감소했는데, 해당 이슈가 더 정치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비당파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을 영구 연장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약 400만 명의 추가 가입자가 생기고, 비용은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캠페

**<전체 기사 읽기>**  
인 광고에서 보험료 상승을 트럼프 행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을 우려해 공화당 내 일부 의원과 전략가들은 또 다른 오바마케어 전쟁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 특히 그의 여론조사 책임자 토니 파브리치오 역시 보조금을 종료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경고했다.

그러나 다른 보수 성향 의원과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비용이 지나치고, 사기에도 취약하며, 팬데믹 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한다. 또한 소득이 빈곤선 100%에서 400% 사이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 광범위한 보조금이 원래 ACA의 취지를 훼손하며 보험사들의 이익만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의 구상: 보조금을 저축계좌로 지급

오랜 기간 ACA 비판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사로 가는 수십억 달러를 재분배해 일반 국민의 저축계좌로 돌리는 방안을 정리했다. 그는 이 방식이 국민에게 더 많은 의료 선택권을 준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의료를 스스로 구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오바마케어 광란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는 13일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개념은 오랫동안 보수층의 선호 방안이었다. 이들은 건강저축계좌가 개인에게 더 많은 의료 지출 통제권을 주고, 개인 책임을 강화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패러곤 헬스 인스티튜트도 ACA 보조금의 일부를 보험사가 아닌 건강저축계좌로 전환하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참고하고 있다.

패러곤의 대표 브라이언 블레이즈는 목요일 뉴스레터에서 “이 정책은 보험료 인하, 연방적자 축소, 환자 선택권 확대라는 드문 ‘세 가지 승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일요일에도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자신들이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2017년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를 좌초시킨 정치적 위험 요소를 피하려 하고 있다.

상원의원 릭 스킷은 “기존질환 보장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ACA를 폐지하는 대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가능한 일이 다.”

### 상원의 카시디: 보조금을 '선불 의료계좌'로 전환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빌 카시디 공화당 의원은 수요일 인터뷰에서 11월 말 청문회를 열어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ACA 가입자에게 선불식 건강계좌를 제공하자는 그의 자체 제안도 포함된다.

카시디의 제안에 따르면, 의회는 강화된 보조금을 비과세 의료지출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s, FSAs)로 전환하게 된다. 그는 일부 주에서는 이미 12월 31일 이후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험

| 항목          | ACA 보조금(보험료 세액공제)                        | HSA 직접지급(트럼프 · 공화당안)                      |
|-------------|--|---|
| 기본 개념       |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줌 (소득 기준)                | 정부가 현금을 개인 건강저축계좌(HSA)에 입금                |
| 지원금 흐름      | 정부 → 보험사 (소비자 보험료 감소)                    | 정부 → 개인 계좌 (개인은 보험료 직접 부담)                |
| 보험 가입 유도 효과 | 보험료가 낮아져 젊은 층도 가입 유지                     | 젊은 층은 “보험료 아까움” → 보험 탈퇴 가능성 높음            |
| 보험시장 안정성    | 건강한 사람까지 보험에 남아 리스크 분산 → 보험료 안정          | 건강한 사람 이탈 → 아픈 사람만 남음 → 보험료 폭등(데스스파이럴 가능) |
| 정치적 메시지 효과  |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지만 체감은 낮음                   | “정부가 당신에게 직접 돈 준다!” → 정치적 매력 큼            |
| 소비자 유연성     | 보험료 · 자기부담금 등 특정 용도만 가능                  | 의사 · 병원 · 치과 · 약 · 안경 등 다양한 의료비 직접 지출 가능  |
| 단점          | 정부-보험사 구조가 복잡해 보임 / 공화당은 “보험사 퍼주기” 라고 비판 | 보험료는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보험 가입률 감소 위험         |
| 고위험군 보호     | 고령 · 만성질환자도 적정 보험료 유지                    | 고위험군 보험료 폭등 → 보험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              |
| 재정적 지속 가능성  | 보험료 안정으로 장기적 비용 구조가 예측 가능                | 젊은 층 이탈로 보험료 상승 → 정부 지원 확대 압박             |
| 수혜자 체감도     | “보험료가 내려간다” 정도                           | “정부가 나에게 현금 준다” 효과로 체감 강함                 |
| 전문가 평가      | 시장 안정화 · 보험료 억제에 효과적                     | 시장 불안, 역선택 증가, 보험료 폭등 가능성 크다              |

료율이 책정되었다며, 이 때문에 FSA로의 전환이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시디는 “동일한 금액으로 수혜자가 자기 부담금, 진료비, 치과교정, 치과 진료, 안경 등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유연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와 무관하게 다음 보험년도에 바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FSA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월 보험료를 지불해 보험을 유지하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미시간대학교 경제학자이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한 토머스 부크물러는 “FSA는 안경이나 치과 치료를 사는 데는 좋지만, 큰 의료비 사건이 생기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카시디는 의료비가 양당 공동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하길 촉구했다.

### 다른 아이디어: 환급 체크, 재보험금

트럼프 행정부는 보험료 급등을 완화하는 다른 방안도 모색했다. 9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건강보험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는 CMS의 피터 넬슨에게 마켓플레이스 가입자에게 환급 체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청했다. 이 내용은 익명을 조건으로 발언한 두 명의 CMS 직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검토 중이던 계획의 하나는, 보조금 자격 기준을 넘는 사람들에게 일회성 환급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안이었다. CMS는 Health-care.gov에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내는 수수료로 최대 3억 달러를 환급에 사용할 예정

이었다.

이 환급안은 일단 보류됐지만, 여전히 고려 대상에 남아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의회에서도 마켓플레이스 환급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의 대변인은 의원이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켓플레이스 환급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적 시장을 옹호하는 싱크탱크 ‘기회평등 연구재단’의 아빅 로이는 의료법 개편 아이디어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연령 밴드를 확대하고, 병약자 및 만성질환자를 위해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민주당과 절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 민주당의 입장: 그냥 보조금을 연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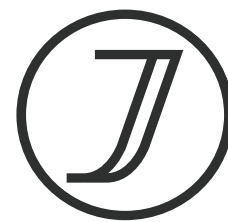
익명을 조건으로 협상 상황을 밝힌 민주당 상원 보좌관들은 보조금 연장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공화당 표를 모을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 기준 강화, 사기 방지 강화 등 공화당의 몇 가지 요구를 절충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쟁 키건스 공화당 의원의 1년 연장 법안에는 이미 공화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돈 베이컨과 제프 허드 공화당 의원은한인 민주당 의원 2명과 함께 보조금을 2년 연장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NASA, 논란의 성간혜성 사진 공개... "외계 우주선? 근거없어"

### 태양계 지나는 외래 혜성 '3I/ATLAS' 관련 소문 일축 태양계보다 오래된 곳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정



NASA가 공개한 성간 혜성 3I/ATLAS 촬영 이미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 항공우주국(NASA)이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온 혜성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외계 우주선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것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NASA는 1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처음 발견된 성간혜성(interstellar comet) '3I/ATLAS'를 약 4개월간 관측하며 찍은 다양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NASA 부국장 아미트 크샤트리야는 이날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먼저 소문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며 "이 물체는 혜성이다. 모든 증거가 이를 혜성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과학자는 이 혜성의 이동 궤도나 구성 성분 및 그 밖의 요인들로 미뤄 혜성이 아니라 외계 우주선일 수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NASA 과학임무부의 니콜라 폭스 부국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것이 혜성 이외의 무엇이라고 믿게 할 만한 기술적 흔적이나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NASA는 그동안 미 연방 정부 첫

다운 탓에 관련 소문에 대응하지 못했으며 혜성 사진 공개도 다소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NASA가 이날 공개한 사진들은 이 혜성이 지난 10월 화성 근처를 지날 때 화성 궤도의 NASA 탐사선들이 약 1천900만 마일(3천만km) 거리에서 촬영한 것들로, 흐릿하긴 하지만 핵 주위의 특징적인 코마(가스과 먼지 구름)와 궤도를 따라 이어지는 먼지 꼬리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NASA는 지난 7월 초 칠레에 있는 '소행성 충돌 최종 경보시스템'(ATLAS)관측소에서 새로운 성간혜성을 처음으로 관측했다면서 이 혜성의 이름을 '3I/ATLAS'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혜성은 지구에서 약 4억2천만마일(6억7천만km) 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것으로 관측됐다.

NASA는 이 혜성이 우리 태양계 외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세 번째 천체로, 현재 태양계를 통과해 지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폭스 부국장은 이 혜성을 "우호적

인 태양계 방문객"(friendly solar system visitor)이라고 표현했다.

NASA 수석 과학자 톰 스타틀러는 이 혜성 핵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직경이 "수천 피트에서 수마일"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스타틀러는 핵이 "둥근 형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혜성의 정확한 기원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NASA 과학자들은 약 45억년 전에 형성된 우리 태양계보다 더 오래된 곳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틀러는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혜성은 오는 12월 19일 지구에 가장 근접할 예정이다. 그때 지구와의 거리는 약 1억7천만 마일(2억7천만km)로,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두 배에 가깝다.

NASA는 이 혜성이 내년 봄 목성 궤도를 지나며 태양계를 통과하는 동안 여러 탐사선을 이용해 계속 관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a@yna.co.kr



NASA가 공개한 성간 혜성 3I/ATLAS 이동 경로

중환 코리야 메디칼 푸어  
www.dunyo.co.kr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노동장관 "정년연장, 노사 설득해야...연내입법 입장 변함없어"

## "최대한 노사 이견 조율해 합의 도출 지원이 정부 역할...정부안 계획은 없어" "산재 감축, 규모 있는 사업장은 변화 감지..."심야노동 새벽배송 서비스 공론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 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라며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당위나 명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청년 일자리(공급과 수요)가 mismatch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

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연장선상에서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노사 자치주의'를 강

조했다.

'노사 자치주의'가 적용돼야 할 대표 주제로는 노사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언급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사법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서 이뤄졌던 창구 단일화를 앞으로 초기업·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100일을 맞이한 김 장관은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산재 감축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달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 사고 현장에서 며칠간 머물며 수습을 지원한 김 장관은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에 공백이 있던 것은 아ని가 싶다"며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를 하듯 산업안전영향평가 등을 진행해 정의로운 전환을 (산업 안전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안전한 조치가 가장 신속한 조치라는 것이 제원칙"이라며 "안전과 신속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신속하게 하려다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돌이켰다.

산재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김 장관은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손에 잡히지 않았

던 작은 사업장과 영세사업장까지 타겟팅해 관리할 것"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재 감축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을 연내 법안 발의하는 것이 현재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는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 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광장 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선 멈추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시민이 일터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최근 새벽배송과 관련해 쟁점이 된 심야 노동에 대해 "국제노동협약이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새벽배송이) 이를 감내해야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가 공론화돼야 한다"며 "민약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가산수당 적용, 모성보호·직장내 괴롭힘 조항 적용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NOV. 21st - NOV. 27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GET READY TO FEAST! HOLIDAY SPECIAL SALES ARE HERE!

'Tis the season for holiday feasts! H Mart is your #1 holiday helper! Bring new ideas to your Thanksgiving today!  
 H 마트와 함께 추수감사절 만찬을 준비하세요!



## NORTHERN STYLE JJIMDAK

A comforting dish that warms the heart and brings everyone together.  
 함께 먹을수록 더 맛있는 이북식 찜닭,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  |  |  |   |   |   |  |
|--|--|--|---|---|---|--|
| Dragon Fruit White Flesh 용과<br><b>\$2.49</b><br>LB | Shanghai Tip 청경채 팀<br><b>\$1.49</b><br>LB                  | Hachiya Persimmon 연시 BOX<br><b>\$24.99</b>           | Small Mustard Green 작은 머스타드 그린<br><b>\$1.49</b><br>LB | Pomegranate 석류 LB<br><b>\$2.99</b>        | Korean Pear 한국산배 PRODUCT OF KOREA 6-11 CNT/BOX<br><b>\$29.99</b><br>BOX |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br><b>\$2.99</b> |
| Fuyu Persimmon 단감 BOX<br><b>\$17.99</b>            | Vietnamese Frozen Durian 베트남 냉동 두리안<br><b>\$3.49</b><br>LB | Korean Radish/Cabbage 한국 무/배추<br><b>\$0.49</b><br>LB |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br><b>\$1.79</b><br>LB         | Gray Squash 그레이 호박<br><b>\$0.99</b><br>LB | Mandarin with Leaf 잎 달린 만다린<br><b>\$1.99</b><br>LB                      | Yellow Corn 노란 옥수수 EA<br><b>\$1.99</b><br>FOR    |

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   |
|--|---|
|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br><b>\$9.99</b> |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br><b>\$3.99</b>          |
|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br><b>\$6.99</b>        |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br><b>\$7.99</b>       |
|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br><b>\$1.99</b>                     |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br><b>\$16.99</b> |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   |
|---|---|
| Live Fluke from Jeju 제주산 활광어 PRODUCT OF KOREA/LB<br><b>\$21.99</b>    | Live Lobster 살아있는 랍스터 LB<br><b>\$9.99</b>             |
| Frozen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LB<br><b>\$2.99</b>                         | Headless White Shrimp 흰새우 16-20'S/LB<br><b>\$7.99</b> |
| Frozen European Seabass (Branzino) 브란지노 600-800'S/LB<br><b>\$6.99</b> | Frozen Pollack Roe 동태알 LB<br><b>\$5.99</b>            |

### SMART CARD MEMBER ONLY

|  |   |
|--|---|
| OTOK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SPICY 4.23 OZ X 18 EA/BOX<br><b>\$16.99</b>        | OTOK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MILD 4.23 OZ X 18 EA/BOX<br><b>\$16.99</b>            |
|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SWEET CORN 19.76 OZ (7 EA/BOX)<br><b>\$8.99</b> |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CHOCO CHURROS 19.76 OZ (7 EA/BOX)<br><b>\$8.99</b> |

|  |  |   |  |   |
|--|--|---|--|---|
| NONGSHIM Neoguri Udon Type Noodles 농심 너구리 MILD SEAFOOD FLAVOR 4.23 OZ X 4 EA/PKG<br><b>\$3.99</b>            | KWANGCHEON Kakao Friends Ryan Crispy Seaweed + Shopping Bag 광천 카카오 프렌즈 재래김 (장바구니 포함) 0.17 OZ X 27 EA + BAG/PKG<br><b>\$11.99</b> | SEMPIO Soy Sauce 샘표 진간장 S/금S RICH & MELLOW/RICH & DELICATE 57.48 FL OZ<br><b>\$4.99</b>                                   | DAESANG O'Food Galbi Marinade for Beef 대상 오푸드 소갈비/소불고기 양념 29.6 OZ<br><b>2\$9</b>           | THE HOUSE Korean BBQ Flavored Beef Patty 그 집 떡갈비 매콤 떡갈비 SPICY 16 OZ<br><b>\$9.99</b>  |
| PULMUONE Korean Style Noodles with Black Bean Sauce 풀무원 직화 짜장면 1.41 LB<br><b>\$5.99</b>                      | PULMUONE Udon Noodle Soup with Fried Tofu 풀무원 가락 유부우동 32.8 OZ<br><b>\$9.99</b>   | GOMPYO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br><b>\$3.99</b>  | 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꿀 유자차 2.2 LB<br><b>\$5.99</b>                                 | HAITAI Honey Butter Chip 해태 허니버터칩 4.23 OZ<br><b>2\$6</b>  |
| SANGARIA Ramuné Premium Carbonated Soft Drink 상가리아 라무네 소프트 드링크 오리지널 6.76 FL OZ X 6 BTLs/PKG<br><b>\$9.99</b> | HAITAI Crushed Pear Drink 해태 갈아만든 배 8.04 FL OZ X 12 CANS/BOX<br><b>\$10.99</b>   | SURLASANG Ga On IH Wok Pan 수라상 가온 IH 궁중팬 10.2 INCH <del>-\$43.99</del> 11.8 INCH <del>-\$49.99</del><br><b>\$32.99</b> EA | ZOJIRUSHI Stainless Steel Mug 조지루시 스테인레스 머그 16 OZ <del>-\$47.99</del><br><b>\$22.99</b> EA | DAEGU 1988 Pre-Washed Unbleached Cotton Comforter 대구 1988 뽕방 워싱광목 차렵이불 BUTTER/CHARCOAL QUEEN (78X90 IN) <del>-\$109.99</del><br><b>\$79.99</b> EA |

전통 먹거리 문화의 명가 - **반찬단지** 한국 인기 브랜드인 반찬단지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품질의 차별성과 기술의 바탕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단지는 한국 전지역 전통시장 및 단체인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함으로써 맛으로 인정 받았으며, HACCP, ISO22000, FSSC22000 등에서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40년 전통**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   |   |   |  |   |
|---|---|---|--|---|
| <br><b>이사 이제봉</b><br>DIRECTOR<br>781.654.5281<br>jee@bostonpremierrealty.com | <br><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br>MARKETING DIRECTOR<br>508.326.6285<br>steve@bostonpremierrealty.com | <br><b>매니저 캐시 송</b><br>BRANCH MANAGER<br>of Hadley Branch<br>414.313.4165<br>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 <br><b>매니저 크리스틴 손</b><br>BRANCH MANAGER<br>of Lexington Branch<br>773.968.2651<br>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 <br><b>매니저 신보경</b><br>BRANCH MANAGER<br>of Lexington Branch<br>508.361.6064<br>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  |  |   |  |   |  |
|--|--|---|--|---|--|
|  |  |   |  |   |  |
|  | <b>김지현</b><br>978.494.2043<br>jhy@bostonpremierrealty.com              | <b>노미연</b><br>617.447.0501<br>nohmi@bostonpremierrealty.com                 | <b>박주연</b><br>617.780.7639<br>tjpark@bostonpremierrealty.com         | <b>장지연</b><br>978.866.3248<br>tjjang@bostonpremierrealty.com        | <b>이진우</b><br>401.538.3397<br>ivy.lee@bostonpremierrealty.com    |
|  |  |   |  |   |  |
| <b>사라 송</b><br>617.338.0787<br>sara@bostonpremierrealty.com            | <b>그레이스 송</b><br>617.435.7710<br>grace.song@bostonpremierrealty.com    | <b>김수진</b><br>617.528.6973<br>kimsoojin@bostonpremierrealty.com             | <b>민아 송</b><br>213.503.0347<br>minasong@bostonpremierrealty.com      | <b>박지연</b><br>413.507.1400<br>parkjy@bostonpremierrealty.com        | <b>손정태</b><br>617.913.3348<br>sonj@bostonpremierrealty.com       |
|  |  |   |  |   |  |
| <b>최진긴</b><br>617.877.0387<br>jgchoi@bostonpremierrealty.com           | <b>이정순</b><br>781.836.3412<br>soo@bostonpremierrealty.com              | <b>한희숙</b><br>781.959.1214<br>hanh@bostonpremierrealty.com                  | <b>장희정</b><br>617.915.1162<br>jhy@bostonpremierrealty.com            | <b>이준국</b><br>617.543.0728<br>jg@bostonpremierrealty.com            | <b>박진연</b><br>404.641.9102<br>wps@bostonpremierrealty.com        |
|  |  |   |  |   |  |
| <b>Tammy Woolfolk</b><br>917.294.5810<br>tammy@bostonpremierrealty.com | <b>Nancy Wang</b><br>617.230.8482<br>wangnancy@bostonpremierrealty.com | <b>Shirley Zhao</b><br>857.531.0314<br>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 <b>Vivian Ye</b><br>617.936.2713<br>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 <b>Xian Dole</b><br>413.527.8979<br>xian@bostonpremierrealty.com    | <b>Lu Jiong</b><br>248.449.0117<br>jiong@bostonpremierrealty.com |
|  |  |   |  |   |  |
| <b>John Tran</b><br>617.406.9652<br>john@bostonpremierrealty.com       | <b>Rebecca Phu</b><br>617.833.1888<br>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 <b>Michael Sorra</b><br>978.873.0076<br>msorra@bostonpremierrealty.com      | <b>Linda Tu</b><br>857.210.8830<br>linda@bostonpremierrealty.com     | <b>Jun Wang</b><br>646.278.2623<br>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 <b>Lily Wang</b><br>617.936.7212<br>lily@bostonpremierrealty.com |
|  |  |   |  |   |  |
| <b>Crystal Wei</b><br>413.308.0255<br>cwei@bostonpremierrealty.com     | <b>정혜민 박</b><br>201.446.8995<br>min@bostonpremierrealty.com            | <b>재미크 김</b><br>781.596.0409<br>dick@bostonpremierrealty.com                | <b>이신현</b><br>857.260.0434<br>shin@bostonpremierrealty.com           | <b>Mini Belanger</b><br>413.257.1586<br>mwb@bostonpremierrealty.com |  |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짧아지는 겨울, 귀해지는 눈...문 닫는 스키장들

경기도 스키장 5곳 중 3곳 휴·폐장...일부 스키장도 '고민 중' 인공눈 의존 높아 비용 증가에 스키 인구 감소까지..."지원 필요"



양지리조트 스키장 인근 문 닫힌 스키용품점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가을이 깊어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하얀 설원을 누비며 겨울을 즐기고 스키와 스노보더들의 기다림도 커지고 있다. 강원 일부 스키장은 올겨울 개장을 앞두고 이미 지난달 말 제설기를 가동해 인공눈 만들기엔 들어갔다. 하지만 국내에서 즐기는 설원 위 질주의 즐거움도 어쩌면 머지않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스키장 곳곳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곳곳 스키장 휴·폐장 또는 축소 운영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양지파인리조트 스키장.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교통편이 좋아 인접한 이천시 마장면 지산리조트 스키장과 함께 스키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수도권의 대표적인 스키장 중 한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찾아간 이 스키장 슬로프에는 잡풀만 무성했다.

스키어들이 이용하던 편의시설 등은 녹이 슬거나 벽면 페인트가 벗겨져 쓸쓸스런 분위기까지 했다.

스키어들을 쉴 새 없이 실어 나르던 리프트가 멈춘 채 덩그러니 공중에 매달려 있어 이곳이 스키장이었음을 짐작케 했다.

이 리조트로 향하는 도로변에도 예전에는 스키용품 대여점이 즐비했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스키 대여리는 간판이 붙어 있는 한 단층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으나 공실이 된 지 오래인 듯 보였다.

1982년 개장했던 슬로프 8개 규모의 파인리조트 스키장은 2022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현장에서 만난 리조트 관계자는 "스키장은 폐장한 지 오래됐고, 한동안 눈썰매장만 운영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이 스키장뿐이 아니다.

2021년 1월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포천시 베어스타운 스키장도 이듬해인 2022년 10월 31일부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남양주시 화도읍 스타힐리조트 스키장(옛 천마산스키장) 역시 2021년 6월 30일자로 폐업 방침을 밝혔다.

양지파인리조트 스키장과 같은 해 개장한 이 리조트 측은 당시 "코로나 19 사태로 영입이 제한되고 매출이 급감해 폐업에 이르렀다"고 했다.

1993년 12월 개장했던 남양주시 호평동 서울리조트 스키장도 2008년 폐장했고, 1976년 강원 용평리조트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강원 고성 알프스세븐리조트 스키장도 2006년 4월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에덴밸리리조트 스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7개 슬로프 중 2개만 운영하다가 지난해 겨울에는 1개만 운영한 데 이

어 올해도 일단 1개 슬로프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실제 운영 여부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리조트 측은 밝혔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이하 스키장협회)에 따르면 1975년 용평스키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문을 연 국내 스키장은 19곳이지만 이 중 6곳이 휴·폐장에 현재는 13곳만 운영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스



잡풀만 무성하자라고 있는 양지리조트 스키장



지난 29일 개장 후 첫 휴일을 맞은 강원 평창군 용평스키장.

키장 가운데서도 2~3곳이 경영 악화로 슬로프 축소 운영 또는 폐업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겨울 기온 상승으로 눈 적고 설질도 나빠져...이용객 감소 악순환

스키장 업계에 따르면 전국 스키장들의 잇따른 휴·폐장 및 축소 운영 등은 일부 업체의 경우 다른 내부 문제도 있지만 지구온난화 등 기온 변화, 스키 인구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스키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강원 평창지역의 1월 평균 기온은 2010년 영하 8.2도에서 2015년 영하 5.2도, 2020년 영하 3.2도로 높아졌다.

경기 용인·이천지역 1월 평균 기온도 2010년 영하 6.0도, 2015년 영하 1.9도, 2020년 영상 0.9도로 올랐다.

이에 따라 용평리조트의 경우 인공눈을 만드는 비용이 2010/2011년 시즌 10억 4천 800여 만 원에서 2015/2016년 시즌 10억 9천 500여 만 원, 2019/2020년 시즌 14억 8천 800여 만 원으로 상승했다.

다른 스키장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스키장협회 측은 설명했다.

겨울 기온이 올라가면서 스키장 운영 일수도 감소해 용평스키장은 2017/2018년 시즌 138일에서 2019/2020년 시즌 129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덕유산스키장은 107일에서 93일로, 웰리힐리스키장은 128일에서 105일로, 베어스타운은 113일에서 87일로, 지산스키장은 109일에서 94일로 감소했다.

전국 스키장 슬로프 이용객 역시 2010/2011년 시즌 648만여 명에 이어 2011/2012년 시즌 686만여 명으로 증

에는 146만여 명으로 줄었다. 2011/2012년 시즌보다 무려 78.8%나 감소한 것이다.

이후 다소 회복돼 2024/2025년 시즌 435만여 명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피크 시즌보다 36.7% 적은 것이다.

젊은층 이용객 감소와 여가 트렌드 변화로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스키장들의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스키장협회 측은 "지구 온난화로 스키장들의 제설 비용이 늘고, 매 시즌 개장 날짜가 늦춰지는 것은 물론 운영 일수가 감소하면서 스키장들이 갈수록 매출 감소,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힐리조트 스키장 측은 폐업 당시 안내문을 통해 "스키장을 40년 운영하면서 몇 해를 제외하고 항상 적자를 기록했고, 스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대형 스키장 개장, 기후 온난화에 따른 겨울철 스키 영업 일수 감소, 제설 등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경영이 악화해 부득이 폐업한다"고 밝혔다.

◇ 지역경제에 큰 타격...지원 등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스키장 폐장 및 휴장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개의 슬로프를 갖춰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 폐장으로 스키용품 대여점을 비롯해 주변 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1980년대까지 강원 설악권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던 고성 알프스세븐리조트를 재개장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스키장협회 조원득 사무국장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재 50만 원 선인 스키장 시즌 이용권이 언젠가는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스키를 즐기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할 수도 있다"며 "스키장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스키장을 폐업할 경우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부지를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한 채 방치하는 스키장들이 있다"며 "스키장들이 비시즌 사업을 다각화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스포츠 시설들과 같이 스키장도 규제만 하지 말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NOV. 20<sup>TH</sup> - NOV. 27<sup>TH</sup>, 2025



**K TOWN Mochi Ice Cream/Sherbet**  
케이타운 모찌 아이스크림/샤벳

REG. \$5.99/EA

LIMIT 4

**2 \$5.99**  
FOR



NEW ARRIVAL

INJEOLMI/MUGWORT/  
UBE/PASSION FRUIT - 12 FL OZ (6 EA/PKG)



LIMIT 2



**SHINIL Electric Carbon Heater**  
신일 전기 카본 히터

- Healthy Far-Infrared Warmth  
건강한 원적외선 난방
- Efficient 600W Heating  
600W 초절전 난방

REG. \$169.99

**\$109.99**  
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우리 동네 특공대' 윤계상 "더 늙기 전에 액션 해보고 싶었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더 늙기 전에 액션을 해 보고 싶었어요"(윤계상)

배우 윤계상이 올 연말 액션 코미디 장르 드라마를 통해 '예비역 특공대'로 변신한다.

윤계상은 17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제작발표회에서 "공을 들인 액션이 2부에 나오는데, 그걸 해 내면서 아직 내 나이에도 (액션 연기) 기회가 더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윤계상이 연기한 최강 등 다양한 특수 경력을 지닌 이웃들이 동네를 지키고자 발 벗고 나선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지구 평화나 국가 안보 같은 거창한 목표가 아닌 '우리 동네'를 위해 뭉친 인물들은 소탈한 웃음을 선사한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동네 주민들의 이면에 서글서글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과거와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반전 매력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보험 조사관 최강이 이사 온 동네에 연쇄 테러가 의심되는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의리로 뭉친 주민들은 특공대 작전에 돌입한다.

윤계상은 극 중 특작부대 요원 출신 에이스 보험 조사관 최강을 연기한다.

과거 영화 '범죄도시'에서 냉혹한 악역 장첸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그는 이번에는 냉철함, 인간미, 유쾌함을 모두 지닌 주인공으로 연기 변신을 꾀했다.

윤계상은 "평상시 보여주는 모습과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나오는 '본캐'가 이중적인 인물이다. 그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극 중 최강과 호흡을 맞추는 기술병 출신 동네 청년회장 광범남은 영화 '범죄도시'·'극한직업',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애마' 등에 출연한 진선규가 맡았다.

진선규는 "제가 가진 본연의 착한 느낌보다는 '테토남'(남성성이 강한 남자) 같은 느낌을 많이 보여드리고자 했다"며 "그래서 평소 잘 안 나는 수염을 붙이거나 그려보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도 짧게 했다. 이 동네 어딘가 있을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있다면 동네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범죄도시'에서 악랄한 범죄 조직원으로 만난 윤계상과 진선규는 8년 만에 정의를 지키는 동네 특공대로 다시 연기 호흡을 맞췄다.

윤계상은 "이번엔 더 강력한 호흡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도 좋고 배우로도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 진선규를 너무 좋아한다. 연기 호흡이 운명적으로 좋았다"고 했다.

진선규도 "'범죄도시' 때는 제가 장첸(윤계상 분)의 아래에 있었다면 이번엔 청년회장 역할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며 "윤계상과는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한입 물면 소시지에서 육즙이 나오고 떡은 쫄쫄쫄쫄한 소떡소떡 같은 '케미'(호흡)를 만들었다"고 거들었다.

연극과 뮤지컬, 드라마, 영화를 오가며 활동하는 김지현은 특대대 조교 출신 마트 사장 정남연을 연기했다. 영화 '범죄도시 3'와 드라마 '열혈사제 2' 등에 출연한 고규필은 사이버 작전병 출신 체육관장 이용희로 특유의 인간미와 입담이 돋보이는 신스틸러 연기를 펼친다.

김지현은 "마트에서는 잘 웃고 손님에게 친절하지만, 사건이 터지면 단단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절대 웃지 않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며 "그러한 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웃는 모습은 마트에서만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고규필은 "코미디도 있고 액션도 있는 드



라마이자 윤계상의 액션이 관전 포인트인 작품"이라고 말했다.

박격포병 출신의 엘리트 공대생으로 동네 특공대 막내로 들어온 박정환은 이정하가 맡았다.

이정하는 "지금까지 맡은 역할 가운데 가장 엘리트를 연기했다"며 "드라마 속 조력자 연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만난 기적', '저스티스',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정숙한 세일즈'를 연출한 조웅 PD가 연출을 맡아 처음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작품에 도전했다.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이날 오후 10시를 시작으로 매주 월·화요일 쿠팡플레이와 지니 TV를 통해 공개된다. ENA에서도 동시 방송된다.

# 넷플릭스로 간 나영석 사단... 새 예능 '케냐 간 세계' 25일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스타 PD 나영석이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넷플릭스는 오는 25일 새 예능 '케냐 간 세계'를 독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케냐 간 세계'는 개그맨 이수근, 가수 은지원, 규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tvN '신서유기'에서 출연진이 뽑기로 얻어낸 여행을 실현한 것으로, 스펀오프(파생작) 예능이

다.

'1박2일', '꽃보다 ○○' 시리즈, '신서유기' 시리즈를 만든 나영석 PD, '채널 십오야'의 김예슬 PD가 연출을 맡았다.

CJ ENM 산하 레이블이자 그간 tvN 예능을 주로 제작했던 에이즈커밍 소속 제작진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을 내놨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넷플릭스는 올해 9월 예능 라인업을 소개하는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 2025'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기대작으로 소개했다.

heeva@yna.co.kr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특판전

WELCOME TO GYEONGBUK SALE EVENT

ENJOY OUR ANNUAL FESTIVAL OF GROCERIES FROM THE NORTHERN PROVINCE OF GYEONG SANG.

NOV. 21st - DEC. 4th, 2025

GB Dried Pacific Saury(Red)

경북 범촌식품  
포항 발효과메기  
매운맛

2.47 OZ

~~\$12.99~~

\$7.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1)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정든 고국의 소식에 마음이 간다. 최근 들려온 반가운 소식은, 한국의 코스피가 무려 70% 가까이 급등하며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증시 역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대표 지수인 S&P 500의 상승률은 올해 들어 약 15%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주식에 투자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는 단기적인 ‘속도’ 보다 장기적인 ‘방향’ 을 읽는 안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잠시의 화려한 성과에 흔들리기보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바라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큰 화제를 모은 콘텐츠 <K-pop 대문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특히 미주 한인 2세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을 만든 핵심 창작자들이 대부분 재외 동포 1.5세 혹은 2세라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 전통 소재인 도깨비

, 저승사자, 갓, 까치호랑이를 기성세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했다. 그 낯선 시각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었다.

투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단기적인 성과나 국내 중심의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장기적인 성공의 길이 열린다.

현재 환율(약 1,420원)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한국 주식시장의 총 시가 총액은 약 2.3조 달러 수준이다. 이를 미국의 개별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규모의 차이가 확연하다. 엔비디아는 약 5조 달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4조 달러에 이른다. 즉, 한국 전체 주식시장의 크기가 미국의 대형 기업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위치 (Location)’ 라면, 주식 투자에서는 ‘분산 (Diversification)’ 이 핵심이다. 2023년 기준 한국 증시는 전 세계 시장의 약 1.3%, 미국 증시는 58.4%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 대부분을 한국 주식에 집중하는 것은 투자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몰빵 투자’ 에 가깝다. 한국에 집중된 투자는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

로는 위험성이 훨씬 높다.

한국 주식시장은 단순히 규모가 작다는 점을 넘어, 분산 효과 자체가 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가 크다. 많은 대기업이 여전히 재벌 중심의 가족 소유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어렵다. 소수주(재벌가)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다 보니, 주주 가치 제고보다는 내부 이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한국의 코스피와 미국 S&P 500의 연간 수익률을 비교하면 장기적인 성과 차이가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 10년 코스피와 S&P 500 수익률을 비교해 보자.

2024년 약 -10%와 25.0%, 2023년 18.7%, 26.3%, 2022년 -24.9, -18.1%, 2021년 3.6%, 28.8%, 2020년 30.8%, 18.4%, 2019년 7.7%, 31.7%, 2018년 -17.3%, -4.41%, 2017년 22%, 21.9%, 2016년 3.3%, 11.9%, 그리고 2015년은 24%, 1.31%였다.

요약하면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는 3.6% 그리고 S&P 500은 14.2%로 무려 10.7% 차이가 난다. 복리로 연 10%의 수익

을 올리면 약 7년마다 자산이 두 배로 불어난다. 이 차이는 결국, 한국 시장에만 머물렀던 투자자들이 놓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의미한다.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샘플 크기’ 다.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 미국 시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 샘플이 많을수록 데이터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는 통계의 기본이자, 장기적인 투자 판단의 핵심 원리다. 역사적 데이터를 충분히 보유한 시장일수록 경제 위기나 회복, 기술 혁신과 경기 순환의 다양한 패턴이 축적되어 있다. 이런 데이터는 단기적 감정이 아닌 근거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투자 결정은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삶과 미래의 안정을 좌우한다. 그래서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 분산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 이 세 가지가 재정적 안정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일부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배움과 가르침에 헌신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반세기의 마음  
HALF A CENTURY OF HEARTS DEDICATED TO LEARNING AND TEACHING



# 개교 50주년

지난 반세기 동안 2세들을 위한 한글과 한국 문화, 역사, 그리고 올곧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어주는 탄탄한 다리로서, 헌신적인 교사와 든든한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지원속에서 성장해 온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개교 50 주년을 맞이하며, '마음으로 가르치고', '호기심으로 배우며, 기쁨으로 놀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반 세기의 여정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주보스턴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을 비롯하여 뉴잉글랜드 지역 여러 한인단체의 지속적인 격려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잘 배우고 가르치며 서로 돌보는 모범적인 공동체"로서 다음 50년의 역사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 11. 22.

특별히,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모든 교사, 학부모,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 '다음생' 김희선 "나도 영포티...경단녀 마음 와닿았죠"

(서울=연합뉴스) 고기혜 기자 = "전부 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 도 극 중 나정이처럼 딱 6년 정도 쉬다가 돌아왔는데,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의 마음이 정말 와닿았죠."

배우 김희선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코리 아에서 열린 TV조선 새 드라마 '다음생은 없으니까'의 제작발표회에서 자신도 40대이자 경단녀였 다며 극 중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큰 공감을 표했다.

'다음생은 없으니까'는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혼란한 시기로 꼽는 불혹에 직면한 세 친구가 더 나은 '완생'을 위해 나아가는 좌충 우돌 코믹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 다.

김희선은 과거 역대 연봉의 촉 망받는 쇼호스트였지만 아들 들 을 낳고 6년간 경력이 단절된 '경 단녀' 조나정 역을 맡았다.

그는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 으면서 딱 6년이라는 시간을 아이 를 키우며 보냈는데, 마음이 굉장히 허허더러"고 회고하면서 40대

는 모든 여성이 한번쯤 고민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어 "나정의 마음이 그때 제 마음과 비슷해서 잘 와닿았다. 이미 한번 같은 마음을 겪다 보니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며 "원래 대본을 읽는데 시간이 좀 걸 리는 편인데 하루 만에 시나리오 를 다 읽었다"고 말했다.

김희선은 최근 '영포티'(젊은 40 대)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 것 에 대해서도 조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원래는 영포티라는 말이 이런 (안 좋은) 의미가 아닌데 조금 변질이 된 것 같다. 너무 어려 보이려 하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 라고 생각한다"며 "내 나이에 맞게 사는 것도 행운이고 힘든 일"이라 고 강조했다.

2015년 무렵 등장한 영포티는 유행 에 민감하고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는 긍정적 의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척하는 중 년', '나아가 겠으로는 여권을 얘기 하면서 뒤에서는 젊은 여성들에

게 치근덕거리는 중년 남성들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김희선과 함께 다양한 40대 여성 의 모습을 연기한 한혜진도 "40 대도 정말 괜찮다는 것을 이번 드 라마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극 중 한혜진은 모든 것이 완벽 해 보이지만 무성욕자 남편과 아이 를 낳기 위해 애쓰는 아트센터 기획실장 구주영을, 진서연은 결혼 에 대한 환상이 큰 골드 미스인 잡지사 부편집장 이일리를 연기 했다.

한혜진은 실제 촬영을 하며 자기 자신과 결혼생활을 돌아보게 됐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사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무 더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앞세울 수 있다"며 "활영하며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됐다" 고 말했다.

이 작품은 40대를 맞이한 세 여성 의 연대에 초점을 맞췄다.

세 명의 배우는 실제 촬영 현



장에서도 연기 호흡이 정말 좋았 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진서연은 "사실 여배우들이 모 이면 사실 케미가 안 맞으면 어찌 나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 언니들 이 워낙 털털해서 현상이 정말 편 했다"며 "또 예쁜 애들은 예쁜 길

알아서 질투를 전혀 안했다"고 말 하며 웃었다.

아울러 "이 드라마는 누구나 내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감대 가 있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모두 겪을 수 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 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11월 23일 - 11월 29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 운수: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한번 시도해보 세요. ● 금전: 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니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벗어납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자리는 마다하지 말고 꼭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3, 28일 길일. 24, 25일 주의.

**소띠 | 미리 대비를 해두는**

- 운수: 자신만 부족하고 자신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다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지연되기 쉽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4, 27일 길일. 25, 29일 주의.

**범띠 |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 운수: 말을 전하려면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 달하도록 하세요. 잘못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금 전: 원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 입니다. ● 애정: 누구든지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 고를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25, 29일 길일. 23, 26일 주의.

**토끼띠 |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 운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시 간으로 가득하게 보낼 것입니다. ● 금전: 원하던 것을 원하는 가 격대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서도 유리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 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집안에 온기가 듭니다. 함께 웃으면서 보내는 시 간이 많아지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용띠 |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 운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간 거리만큼 돌아 나 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 손해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사들이면 금방 후회하게 되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결혼은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니니 표정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뱀띠 |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 운수: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세요. 넓디넓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금전: 아직은 안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된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당황하 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회복 하면 자녀에게 어떤 영향제보다 더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

**말띠 |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 운수: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 살펴보세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 현을 써야 합니다. ● 금전: 이래저래 나가야 할 것이 많으니 돈 문제로 잔심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 애정: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 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양띠 | 감사하는 마음으로**

- 운수: 자신이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전개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 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두루두루 살피고 배우는 여유도 생깁니다. 자그 마한 성의 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야끼고 야끼던 말이 있다면 이 번 기회에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합쳐질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원숭이띠 | 훌훌 털어버려야**

- 운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 다.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금만 마음이 들 수 있 습니다. ● 금전: 돈에 연연하다가 되는 도리어 병이 되니 훌훌 털어버리세요. ● 애 정: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나 진 심으로 한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

**닭띠 | 밝고 환하게 웃는**

- 운수: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 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 금전: 나가는 것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 애 정: 기대해도 될 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위를 잘 살펴보면 운명의 짝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23, 28일 길일. 27, 29일 주의.

**개띠 | 크게 기지개를 피고**

- 운수: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잔뜩 움츠렸던 상태에서 벗 어납니다. 크게 기지개를 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자신을 늘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언젠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서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돼지띠 | 냉철하게 살펴보고**

- 운수: 귀가 얇아져서 이 치료 저 치료 따라가다가는 오히 러 상태가 악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 금전: 현금 흐름을 잘 살 펴보도록 하세요. 자신의 자금 상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양보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28일 길일. 23, 29일 주의.

# 6년만에 돌아온 김건모 "멋지게 늙은 영감 돼 항상 여러분 곁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멋지게 늙은 귀여운 영감이 돼 항상 여러분 곁에 이렇게 맴돌겠습니다."

가수 김건모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투어에서 마무리 인사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댓글에 신경 쓰지 않고 살겠다"며 오랜만에 팬들 앞에 다시 선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김건모가 지난 2019년 활동을 중단한 지 6년 만에 가요계 복귀를 알린 전국투어의 수도권 공연이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성황리에 복귀 신고식을 치른 그는 지난달 대구 공연에 이어 이날 수원을 찾았다.

김건모는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이번 공연에서 지난 32년 동안 내놓은 히트곡을 망라하며 자신의 음악 여정을 정리했다. 재즈, 솔, 발라드, 댄스 레게 등을 아우르는 빼어난 가창력,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운 음색, 너스레 좋은 입담은 긴 공백에도 녹슬지 않고 여전했다.

이날 공연은 무대 뒤 LED에서 지난 공백을 암시하는 듯한 영상 메시지로 시작했다.

그는 이 영상 속 자막 메시지를 통해 "하얀 여백이었을까, 깊은 어둠이었을까 살면서 때로 멈추게 된 그 순간들은. 어쨌든 우린 그냥 가면 돼 다시"라며 "이번에 찍는 건 '쉽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될 것"이라며 활동 재개와 투어 완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첫 무대부터 1990년대 전곡을 들썩이게 한 메가 히트곡 '핑계'와 데뷔곡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가 흘러나오자 장내는 6년의 공백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 순식간에 함성과 함께 열기로 달아올랐다.

김건모는 트레이드마크 같은 동그란 알의 선글라스에 짧은 머리로 흥이 넘치는 목소리와 애드리브를 들려줬다. 무대 좌우를 오가는 그의 움직임과 제스처에는 노련한 여유가 넘쳤다. '핑계'를 부를 때는 1993년 활동 당시처럼 춤을 추는 여성 댄서 한 명과



짜증을 이뿔 무대를 꾸며 관객을 추억 속으로 안내했다. 객석 곳곳에서는 '기다렸어요 건모 오빠' 같은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고, 한편에서는 "오빠!" 하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김건모는 "폭 쉬다가 5년쯤 됐을 때 '아이제 (복귀할) 때가 됐구나' 했는데 광고에서 '홍삼은 6년'이라길래 1년 더 폭 쉬고 아주 잘 좋게 나타난 김건모"라고 익살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앞서 부른 '핑계' 등을 언급하며 "방금 정말 신나는 곡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일어나는 사람 없이 질서를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신나는 곡이 많이 준비돼 있는데"라고 너스레도 떨었다.

김건모는 이어 라이브 밴드와 합을 맞춰 '냄새', '바보', '사랑이 날 슬프게 할 때', '당신 만이' 등 가을에 잘 어울리는 서정적인 노래를 이어갔다. 그는 음과 음 사이를 여유롭게

노니며 오랜만의 무대를 즐겼고, 색소폰 등 풍성한 브라스 사운드는 어느 재즈 바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짱가', '스피드', '사랑이 떠나가네'로 장내의 공기가 또다시 신나게 바뀌자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몸을 흔들었다.

그는 2부에서는 흰 재킷을 입고 피아노를 치며 등장해 '아름다운 이별', '미련', '미안해요' 등 발라드 히트곡을 내리 들려줬다. 노련한 보컬이 돋보인 '서울의 달'의 곡조에서는 삶의 쓸쓸함과 고달픔이 퍽 잘 묻어났다.

김건모는 이날 관객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를 무대 위에 앉히고서 '미안해요'를 이들의 이름을 넣어 개사해 부르기도 했다.

그는 관객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특유의 입담을 발휘했지만, 노래가 시작하면 180도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음을 쏟아냈다.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스티비 원더 비지스처럼 노래할래요'라는 가수의 꿈을 그린 '마이 선'(My Son) 가사가 이날따라 더욱 진솔한 고백처럼 다가왔다.

김건모는 자신의 최대 히트곡 가운데 하나인 '잘못된 만남'에 이어 '내게도 사랑이', '빛속의 여인', '사랑합니다'를 앙코르로 선보였다. 마지막 곡을 마치고 벽찬 표정으로 장내를 빼곡히 채운 관객을 향해 '큰 절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건모가 6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이 순간, 공연을 마무리하는 '사랑합니다'의 노랫말은 긴 여운을 남겼다.

'내 가슴 속 하고픈 말들을 이제서야 말해요 /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 우리의 사랑이 지쳐있을 때 / 나만을 믿어준 그대 때문에 / 견딜 수 있었어요.'

# 듀스, 28년만 신곡 '라이즈' 발매...故김성재 목소리 AI로 복원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1990년대를 풍미한 힙합 듀스가 멤버 고(故) 김성재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해 신곡을 발매한다.

듀스 멤버 이현도가 이끄는 연예기획사와 이드컴퍼니는 듀스가 27일 오후 6시 정규 4집 프로젝트의 신곡 '라이즈'(Rise)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듀스가 신곡을 발매하는 것은 1997년 베스트 앨범 수록곡 '사랑, 두려움' 이후 28년 만이다. 1993년 결성된 듀스는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등의 히트곡을 남겼으나 1995년 해체를 선언했고 그해 김성재도 돌연 세상을 떠났다.

듀스는 이번 신곡에서 김성재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해 당시 듀스의 감성을 재현한다. 음성 AI 전문기업 소리소리 AI와 제휴해 목소리 톤과 질감을 재현하는 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성재의 목소리를 되살렸다.

음악적으로는 특유의 뉴잭스윙(힙합과 알앤비를 결합한 흑인음악) 사운드를 들려주는 한편, AI 영상 전문 스튜디오 '디에이프스쿼드'가 뮤직비디오 제작을 맡아 미래지향적 영상을 선보인다.

듀스는 신곡 발매 당일 광화문 KT스퀘어와 세종문화회관 트라에서 특별 청음 행사 '더 사운드 스테이지 위드 KT'(THE SOUND STAGE with KT)를 개최한다.

내년 상반기 정규 4집도 발매할 예정이다.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0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이유!!

“목표를 향하지 않는 속도는’ 낭비’가 된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를수록 더 멀리, 더 많이, 더 크게 잘못된다. 인생이나, 신앙이나, 사역에서도 잘못된 길을 빠르게 가는 것은 결국 더 큰 후회만 남긴다. 방향은 목표를 결정하고, 속도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일 뿐이다. 방향은 목적지의 선택이며, 속도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말한다. 목적이 없다면 빠른 속도는 오히려 위험해진다. 속도는 바꿀 수 있지만, 방향을 잃으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잘못된 방향으로 1년을 달리면, 다시 돌아오는데 또 1년이 걸린다.

성경적 관점에서 ‘올바른 길’이 우선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예레미야 6:16)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5)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즉 방향이 확

실할 때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속도는 비교의 대상이지만, 방향은 자기 ‘고유의 길’이다. 속도는 남과 비교하게 하지만, 방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근본적인 것이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다. 길 자체가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방향을 잃었을 때마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생명의 길인 이유이다. 올바른 방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속도는 인간의 힘이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나의 생각으로 속

도를 낼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걸음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 바른 목자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빠르게 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자신이 길’임을 선언하셨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이라는 인격적 길에 맞춰야 한다. 방향이 흔들리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게 된다. 아무리 빠르고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은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만다.

천천히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안전하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 이유는 그가 나를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목자가 인도하시는 ‘의의 길’, 이것이 바로 방향이다. 속도는 양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라 가느냐’ 이것이 양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방향을 정한다. 신앙의 성숙은 속도가 아니라, 성령께 인도받는 방향성의 문제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 ‘어디로, 누구를 따라,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를 강조하고 있다. 속도는 인간의 능력이고, 방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속도는 나를 드러내지만, 방향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따라서 신앙인은 속도를 내기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 위에서 것을 우선해야 한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위에서 있는가 바로 이것이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신앙은 속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걷는 것이다. 영적으로 바쁠수록, 사역이 많을수록, 열심히 뛰기 시작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어 경구가 많다.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 묵상은 짧아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영혼은 지쳐간다. 속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방향은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사람은 언제나 때가 되면 속도가 붙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걷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막새

## 한담객설閑談客說: 경주 수막새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새를 넣었다. 수막새는 신라의 미소라 말한다고 한다. 정식이름은 ‘얼굴무늬 수막새’라 하는데, 보통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지붕기와와 함께 얹혀있던 건데 이제는 귀중한 보물이 된거다.

내겐 웃는 모습이 정겹다. 자세히 들여다볼적에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 오히려 귀엽기 짝이 없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선게 영락없는 명품이다. 장인은 제작할 적에 무척 즐거운 마음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어린아이를 떠올리며 작품을 제작했을 법한 거다. 먹을 것 걱정없고, 가정이 모두 평안할진대, 일할 적에 즐거움도 한층 더했을듯하니 말이다. 그 시절은 분명 태평성대였을터

시인 박목월 선생의 고향이 경주라 했던가. 또한 소설가 김동리선생 역시 경주가 고향이다. 동리선생의 작품속엔 경주가 곳곳에 묻어 난다고도 했다. 선생의 고향자랑은 대단하다.

“경주의 산과 들은 어디서나 예술과 문화를 뽐어내는 듯 합니다” (김동리, 작가의 고향찬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한국 대기업 LG의 상품광고 문안이다. 내 귀에도 사뭇 익었는데, 엘지의 로고 역시 인상적이다. LC 로고는 경주 수막새를 바탕으로 했더니 말이다. 이제 경주는 예술과 문화를 넘어 산업에 까지 영역을 넓혀 간다.

선조들이 남겨준 유산을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요사이엔 한화가 재미가 쏠쏠한 모양이다. 화약만들던 회사 아니던가? 이젠 잠수함도 제작한다던데, 그회사 역시 환하게 웃을 거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 106:5)

지난 달에 한국 경주에선 대단한 행사가 있었다. APEC회담인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등 여러나라 정상들이 모였다고 했다.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들었다.

경주라면 불국사와 석굴암을 포함한 수학적여행지이다. 천년고도古都일적에 땅을 파면 무수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다고도

했다.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연구현장인게다.

언젠가 읽었던 글구절이다. 역사학자들에게 깨진 기와장 파편하나도 귀하다. 왜 아니겠나. 비바람과 함께 천년이상의 세월을 견디고 이제야 눈에 띄었을 테니 말이다.

경주행사 팜플렛이 눈에 들어왔다. 수막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붓는 손발... 신장·심장질환 의심해보셨나요?

## 부종 손발이 자주 붓는다면?

**부종**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이는 상태

**원인** **질환** 간경화, 울혈성심부전, 신중후군, 신장질환, 호르몬수치이상(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진단** - 초기 발목부종,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X-레이 등  
- 심전도,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 24시간 소변단백검사, 혈청 알부민 수치 측정 등 시행



| 관린 질환 진단 및 치료   | 저염식   | 휴식과 수면, 다리 올리기,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
|---|---|---|
|  |  |  |

자료제공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손이나 발이 자주 부어 오를 경우 의심해야 할 질병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신장내과 이 효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최근 진료실에는 ‘요즘 유난히 손이 붓고 신발이 꼭 끼요’ ‘아침엔 괜찮는데 저녁엔 발이 퉁퉁 부어요’ 라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피로하거나 오래 서 있어서 생긴 일시적 부기라고 생각하지만, 반복되거나 특정 부위에 국한된 부기, 또는 아침·저녁 다르게 나타나는 부기라면 몸의 순환계나 장기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부종(edema)은 우리 몸의 세포 사이 공간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이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한 피로로 인한 일시적 부기보다 훨씬 복합적인 원인을 내포한다. 심장·간·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염분이 몸에 축적되면서 부종이 심해질 수 있다.

부종은 크게 전신부종과 국소부종으로 나뉜다. 전신부종은 몸 전체의 수분이 증가하는 형태로, 울혈성 심부전이나 간경변, 신중후군, 만성 신부전 등과 같은 질환에서 나타난다. 얼굴, 손, 다리와 복부나 허벅지 등 신체 여러 부위가 동시에 붓는다.

반면 국소부종은 림프관이나 정맥의 순환 장애가 원인으로, 한쪽 다리나 팔만 붓는 경우가 많다. 정맥류, 깊은 정맥 혈전증, 림프부종이 대표적 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혈액 순환이 정체될 때도 일시적으로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이 밖에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일부 혈압약이나 당뇨약, 스테로이드, 여성호르몬제 등이 수분 배출 기능을 떨어뜨려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종 증상은 손가락 마디나 발목이 붓는 것이다. 정강이 부위를 눌렀을 때 자국이 한동안 남는 ‘오목부종(함요부종)’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종 부위와 아침, 저녁에 따라 달라지는 부기 양상은 원인 질환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체중이 2~3kg 갑자기 늘거나, 한쪽 다리, 눈 주변이 유독 붓는다면 지체 없이 진료 받아야 한다.

부종의 진단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X선 촬영으로 시작한다. 필요시 복부 초음파나 심장초음파, 24시간 소변단백검사, 혈청 알부민 수치 측정 등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는다. 신장질환, 심부전, 간질환 등 원인 질환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치료를 병행한다.

치료의 기본은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저장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소금 섭취를 하루 5g(나트륨 2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염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단순 무염식보다는 균형 잡힌 저염식을 유지해야 한다.

생활습관 교정도 중요하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은 피하고, 중간중

간 다리를 움직여 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 잠잘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면 하체 부종이 완화된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도움이 된다.

“자주 붓는 손발...신장·심장질환 의심해보셨나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계회법인

**호연**

호연회계법인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mailto: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http://www.huramkorea.com)

#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shealth.us

**Hmart**  
hmart.com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